

한국문화교류 소식

58호 2026년 1월 10일 발행·발행인 이효정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1604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kr

2026년 신년사

“Reborn, Together”, 함께 여는 새로운 도약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이자 IKKC 총재인 조정원 총재님의 <2026년 신년사>를 게재합니다. 조정원 총재는 신년사에서 태권도의 글로벌 성장 성과를 돌아보며, 포용과 연대, 혁신을 바탕으로 ‘Reborn, Together’의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조정원 총재님의 뜻깊은 여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_ IKKC 사무국



조 정 원

세계태권도연맹 & IKKC 총재

존경하는 전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은 세계태권도연맹(WT)과 전 세계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중국 우시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7개 회원국이 총 64개의 메달을 나누며, 태권도가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수많은 역사적 순간은 태권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며, 모든 참가 선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시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회원국 여러분의 신뢰 속에 마지막 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WT는 회원국 수가 215개국(+난민팀)으로 확대되어, 올림픽 종목 국제경기연맹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회원국을 보유한 연맹이 되었습니다. 이는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널리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변함없는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집행부와 함께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자이라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와 나이로비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태권도 21세 이하 선수권 대회는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무대였습니다. 특히 유소년대회에서 여섯 명의 난민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과 용기는 태권도가 지닌 포용과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랑프리 챌린지 시리즈, 세계태권도 여자 오픈 선수권대회 그리고 춘천에서 열린 다양한 WT 주관 대회들은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이끌고, 팬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국제 종합대회를 비롯해 품새, 장애인 태권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시작된 난민캠프 지원 활동이 다종목 스포츠로 확장되며, 전 세계 스포츠계가 연대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호프앤드림스 스포츠 페스티벌’은 요르단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 역시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종목이 인류애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WT 주관 및 승인 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해 주신 모든 회원국과 개최 도시,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연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의 태권도 가족으로서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 취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스포츠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토마스 바흐 IOC 명예위원장과 의 만남을 통해 난민과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을 위한 태권도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태권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를 비롯한 첨단 종목의 등장은 스포츠 태권도의 AI 및 디지털 전환을 향한 새로운 무대를 열었습니다. WT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미 시작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의미 있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2월에는 UAE후자이라에서 새 집행부의 첫 이사회가 열려 새로운 주기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행위원들이 WT의 핵심 가치와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숍은 WT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 속에서 태권도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을 빛낸 선수와 지도자들을 기리는 갈라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4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세계태권도청

소년선수권대회와 총회가 개최되며, 젊은 선수들이 11월 다카르 2026 유스올림픽을 향해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는 6월 로마, 9월 무주, 10월 파리에서 이어지고, 11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은 2026년 최고의 선수와 지도자를 기리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9월 춘천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역시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권도박애재단(THF)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호프앤드립스 스포츠 페스티벌’은, 10개 종목으로 확대된 더욱 의미 있는 축제

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며 지난 여정을 돌아봅니다. 앞으로의 WT는 “Reborn, Together” –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연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뢰와 동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이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아침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



▲ 2025년 10월 23일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연임에 성공한 뒤 인사하는 조정원 총재.



컬럼

동검도 겨울 두루미 - 하늘과 땅 사이, 기다림의 새

2026년 병오(丙午)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자 ICKC 회원이신 조광호 신부님의 에세이 두 편을 게재합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 주신 조광호 신부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조 광 호 신부

ICKC 회원,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

절에도 세 마리가 검은 깃털을 거닐고 있습니다.

두루미의 몸은 멀리서 보면 눈처럼 희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흰빛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빛과 회백이 겹겹이 스며 있고, 목 아래로 흐르는 깃빛 선은 마치 오래된 먹선처럼 고요합니다.

길게 뻗은 다리는 물 위를 걷는 기둥 같고, 접힌 날개는 몸보다 길어 등 뒤로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 날개를 펼치면 2미터 가까운 곡선이 공기를 가르며 열리는데, 그 순간조차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스로 길을 내어주는 듯 두루미는 하늘을 납니다. 부리는 단단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눈빛은 맑되 날카롭지 않습니다. 모든 생김새가 말하듯 이 기품 있고 아름다운 새는 평생 한 짝과 살아간다고 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동검도 채플 앞 광활한 깃털에 두루미 가족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지극히 경계하여 가까이 볼 수 없지만,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오늘 성탄

조광호(趙光鎬, Cho kwang-ho, 1947~) 신부는 신앙적 상상력과 조형예술의 융합을 통해, 빛과 공간, 영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이다. 현재 인천교구 은퇴사제이자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명예교수,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다.

그는 1947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79년 성 베네딕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5년 독일 뉘른베르크 쿤스트아카데미에서 5년간 현대회화를 배웠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동판화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연구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문화영성지《들숨날숨》출판국장,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후학을 양성하였다. 은퇴 후에는 인천 동검도에 '동검도 채플'을 설립하고, 신앙과 예술, 영성과 문화를 융합하는 창작과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톨릭 종합조형예술연구소에서 미디어아트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40여 차례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부산 남천동 성당, 대구 범어동 주교좌 성당, 인천 부평4동 성당, 구 서울역 로비, 숙명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등 국내외 30여 곳에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서소문성지 '순교자탑', 강화 '무명순교자탑' 등의 대형 조형물과 청동 조각, 서울 당산철교 대형 벽화 등 다양한 매체의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 현대 종교조형예술의 경계를 확장해 왔다.

_ 2025년 김세중미술관 특별전 <시, 조각, 빛, 그리고 찬미> : 김남조, 김세중, 조광호 작가 소개 중

그런데 동검도 갯벌의 두루미는 두 마리가 아니라 늘 세 마리가 관찰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인가 했더니, 장난기 많은 동네 박영감님은 저쪽 뒤에 있는 놈은 딸이 아니라 첩일 거라고 귀뽀합니다.

한참 웃었지만, 평생 한 짝과 살아간다는 저 새에게 이별도 배신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함께 먹이를 구하고, 함께 날고, 함께 머물며,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는 어린 새끼

가 분명하고, 저 세 마리 두루미는 가족이 분명합니다.

두루미는 더러운 곳을 피해 청정지역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오염된 땅에는 내려앉지 않으니, 두루미가 머무는 곳은 아직 살아있는 땅, 아직 순결한 땅입니다.

“군자는 학처럼 살고, 학처럼 떠난다”는 옛말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언어였습



니다. 청정함을 지키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동검도 깃벌에 두루미가 내려앉는다는 것은 이 땅이 아직 청정한 생명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루미의 우아한 움직임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고매한 자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품 있는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루미와 학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묻는 이도 있지만 두루미를 동아시아에서는 학(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자연의 생명이고, 학은 그 생명에 인간이 부여한 영혼의 이름입니다.

장수, 고결, 신선, 청정, 영적 존재를 뜻하며, 그림, 시, 민화, 도교·불교·유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루미. 청정함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고결함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미학의 상징입니다.

두루미는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느리게, 기품 있게 저녁나절 눈부신 석양 속을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큰 날갯짓 하나하나가 명상이고, 비상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이 덜 닿은 곳에서만 삽니다. 전쟁이 없는 세계의 상징이고, 탈속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영혼의 안내자이며, 조급함도 서두름도 없는 기다림의 새입니다.

그러나 이 조용하고 정제되고 절제된 두루미에게는 놀라운 일탈과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루미의 춤입니다. 두루미의 춤은 본능이면서도 의식(儀式)이고, 몸의 움직임이면서 영혼의 언어입니다.

두루미를 섬세히 관찰한 조류학자들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루미는 평소 고요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춤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합니다. 고

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며 몸의 균형을 가늠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중으로 가볍게 솟구칩니다. 놀라울 만큼 높지만 무겁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중력을 잠시 잊은 듯합니다.

그다음 넓은 날개를 반원처럼 펼치며 공기를 가르지 않고 품습니다. 그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라 환대에 가깝습니다. 몸을 천천히 회전시키고 상대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동작은 인사이자 존중이며,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한 마리가 뛰면 리듬에 맞춰 모두가 응답하듯 따라 뛰는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리듬이 생기고 관계가 태어납니다. 이 춤에는 우열도 지배도 없습니다. 오직 호흡만 있습니다.

두루미가 춤을 추는 것을 조류학자들은 단순히 짝짓기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쁠 때, 긴장이 풀릴 때, 관계를 확인할 때, 살아 있음이 넘칠 때 그들은 춤춥니다. 그래서 이 춤은 하늘이 내린 본능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세레머니이고, 조물주에게 드리는 피조물의 감사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루미가 고고해 보이는 이유는 자기 과시가 없고, 크지만 위협하지 않으며, 아름답지만 꾸미지 않고, 움직이되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춤은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무는 것이다.”

두루미의 춤은 우리에게 함께 존재하는 법,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설명하려 들고 관계를 증명하려 애쓰지만, 두루미는 그저 춤을 춥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두루미처럼 고요히, 아름답게 하늘로 날아 오를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놀라운 물질의 신비



오늘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드글라스 색유리는 약 2,000~3,000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비싼 색은 선홍빛 루비 레드(Ruby Red)다. 핏빛처럼 깊고, 석양처럼 뜨거운 이 붉은 빛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말을 잃는다. 그러나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놀랍게도 이 루비 레드는 금에서 만들어진다. 금은 물질 가운데 가장 신성을 닮은 존재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으며, 오랜 세월 인간의 사랑과 욕망,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금이 진정 빛이 되는 순간은,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다.

불 속에서 녹아 유리와 하나가 될 때, 금은 형태를 잃고 자신을 해체하며 빛으로 변한다. 그때 금은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하는 빛이 된다. 빛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줄 때 태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인간이 오래도록 직감해온 진실이다.

물질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감춰진 존재의 신비를 말한다. 그런 까닭 때문일까. 인간은 언제나 물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감지해 왔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고, 그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돌이 신이어서

가 아니라, 그 위에서 하늘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깎아 형상을 만들고, 금과 빛으

로 하늘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물질은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돌은 말이 없고, 나무는 침묵하며, 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조용히 비춘다.

그래서 물질은 신앙의 언어가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고, 붙잡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언어다.

스테인드글라스의 붉은 빛도 그렇다. “나를 보라”고 외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통과할 뿐이다. 그러나 그 빛이 사람의 얼굴을 스칠 때, 사람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빛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듣는다. 이것이 물질의 신비다.

금은 가장 완전한 물질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물질이다. 사람들은 금을 영원의 상징이라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금은 완전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내려놓을 때 빛난다. 유리공방의 가마 속, 천 도가 넘는 불꽃 안에서 금은 녹고 흩어지며 자신을 잃는다. 그때 금은 더 이상 금이 아니라, 빛

을 산란시키는 미세한 입자가 된다. 붉은 유리는 색이 아니라, 자기 소멸을 통과한 빛의 기억이다.

완전함은 보존에서 오지 않는다. 완전함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된다. 금이 금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것은 무거운 금속일 뿐이지만,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성스러운 빛이 된다. 우리는 묻게 된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성은 위에 있지 않고, 통과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신을 위에 두었다. 하늘 위, 산 위, 왕좌 위에 두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신앙은 말한다. 신성은 지배하지 않고, 조용히 통과한다고.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머물지 않는다. 잡히지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 아침에는 벽을 스치고, 정오에는 바닥에 내려앉으며, 저녁에는 제단을 붉게 물들인다. 그리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빛이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은 잠시 빛 안에 놓인다.

신성은 소유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만 경험된다. 금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부자가 되지만, 금이 빛이 되어 우리를 스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스러움을 안다. 통과하는 것만이 진정 머문다.

신라의 금관은 화려하지만 위압적이지 않다. 무겁지만 지배하지 않는다. 황금 나뭇가지와 곡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그것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늘 앞에 선 존재의 고백이었다. 길 위에서 사유했고, 이동 속에서 세계를 이해했던 스키티이 문명 속 유리시아 동쪽 끝 신라.

초기 신라에서 왕은 지배자가 아니라 중재자였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묻는 사람이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라금관을 쓴 이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였다. 그래서 신라의 금은 말이 없다. 그 침묵 속

에서는 신성이 머문다.

오늘날 금이 권력과 소유의 상징이 되었을 때, 신라의 금은 여전히 말한다. 금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이며, 소유가 아니라 봉헌이라고. 빛은 소유될 때 사라진다고.

오늘 우리는 빛을 쉽게 말한다. 성공의 빛, 속도의 빛, 승리의 빛. 그러나 그런 빛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이 금고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 속에서 녹아 우리가 될 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

참된 빛은 자신을 태워 타인을 밝힌다. 촛불처럼, 사라지면서 밝아진다. 존재가 자신을 내어줄 때, 빛은 세상에 머문다.

금은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다. 명예, 재산, 정체성. 그러나 금은 속삭인다. 네가 사라질 때, 너는 비로소 빛이 된다고. 빛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며, 신성은 권력이 아니라 통과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깊이 빛나고, 가장 많이 내어줄 때 가장 오래 머문다.

스테인드글라스의 붉은 빛은 말한다. “나는 금이 었지만, 금으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해가 기울며 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 그 빛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다. 조용히 어깨를 스치고, 얼굴을 지나, 벽에 머문다.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이 빛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깨닫는다. 빛은 소유될 때 사라지고, 통과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기도를 듣는다.



“한삼춤은 어때요?”



정 현 주

중국 해주한글학교 교감

매년 연말이 되면 <해주한인상공회 송년의 밤>에 참석하시는 교민들에게 해주한글학교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나는 올해 이 무대를 핑계로 지난 여름 전주에서 열린 한국전통문화연수에서 배운 ‘한삼춤’ 춤사위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준비를 위한 교사회의를 하며 연수 때 한삼춤 수업 내용을 녹화해 온 영상을 보여주자 선생님들은 의외로 난색을 표하며, “의미는 있으나 교실에서

가르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수업만으로도 빠듯한 일정에 춤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예상했듯 최근 들어 이런 활동은 한번에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해주한글학교는 올해로 개교 19년째다. 개교 당시 해주는 삼성·LG의 디지털기기 생산기지로 주재원 가족이 모여들며 한글학교가 자연스럽게 시작된 곳이었다. 그 후로도 우리 학교는 교민 자녀들의 한국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 애써왔다. 코로나19 시절을 전후로 많은 기업이 해주를 떠난 뒤에는 재중동포와 한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글학교 학생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선생님들 역시 이전과 다르게 현지 언어 사용의 압박 속에서, 매일의 수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분들에게 공연을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나는 잘 알고 있



해주한글학교 교사와 학생들 ▶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전주 연수(해봄교육문화국제재단 한국전통문화연수)의 열정을 놓을 수 없었다. 오십 년 쓰지 않던 춤 근육을 찾게 한 마법의 춤사위가 아니던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춤은 통하지 않을까—노동 현장의 언어처럼 자연스레 배우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무리인 줄 알면서도 송년의 밤 준비위원회에 무대 공연 대신 동영상 참여를 제안했다. 그리고 다음 교사회의에서 한삼춤 분량을 8개 구간으로 나눠 각 반에 배분하면 부담이 적지 않겠냐며 선생님들

께 협조를 요청했다. 한 반당 30초 남짓, 수업 시간 15분 내외로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동영상 촬영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선생님들께, 아이들 모습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유치부는 천진난만한 그대로, 중등부는 주뻗 주뻗 빼격거리는 모습을, 청소년·성인반은 어수선한 가운데 진지함이 조금 담기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주간의 연습을 마치고, 행사 일주일 전 각 반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학생들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했고,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정성을 다했다. 화면 속 춤사위는 소박하지만 진지함



◀운동장에서 한삼춤을 연습하는 해주 한글학교 학생들



▶교실에서 한삼춤을 연습하는 해주 한글학교 학생들

으로 빛났다.

〈해주한인상공회 송년의 밤〉이 열리고 우리의 영상을 상영하는 순간,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해주었다. 술잔을 든 손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었고, 색다른 시도에 감탄하며, “다음엔 탈춤을 보여 달라”는 즐거운 요청도 들렸다. 그 반응은 교사진에게, 또 해주한글학교에게 큰 위로이자 확인이 되었다.

한글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문자와 문법만이 아니다. 한국의 말과 노래, 몸짓과 마음—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체성을 이루는 토대다. 외국에서 살며

‘저절로 익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운다. 대추가 붉게 익으려면 태풍도 견뎌야 하고 땀병도 지나야 하듯, 아이들의 뿌리도 꾸준한 손길과 시간이 있어야 굳건해진다.

해주한글학교의 지난 18년은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들로 이어져 왔다. 떠나간 이들, 머물며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들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선생님들의 묵묵한 노고와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정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이 터를 지켜, 다음 세대가 한국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것이다. ❏❏❏❏❏❏



▲ 2025 해주한인상공회 송년의 밤 전경



“라멘 아닌 라면”...

K컬처 열풍 타고 옥스퍼드 사전 오른 K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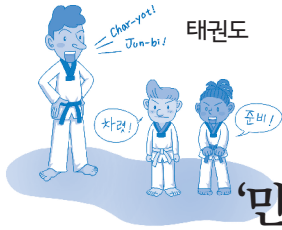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영어사전(OED)에 한국 문화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새로 등재됐다. ‘라면(ramyeon)’, ‘해녀(haenyeo)’, ‘선배(sunbae)’ 등이 이번에 포함됐다. OED의 한국어 컨설턴트인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2026년 1월 7일 ‘빙수(bingsu)’, ‘짬질방(jjimjilbang)’, ‘아줌마(ajumma)’, ‘코리안 바비큐(Korean barbecue)’, ‘오피스텔(officetel)’ 등 한국 문화 관련 단어 8개가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 단어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1884년 처음 출판된 OED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한국 관련 단어는 오랫동안 드물게 등재돼 왔으나, 2000년대 이후 한류 확산과 함께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대박(daebak)’, ‘오빠(oppa)’ 등 26개 단어가 한꺼번에 실리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된 단어들 역시 한류 영향으로 영어권 사용 빈도가 높아진 사례들이다. ‘라면’과 ‘해녀’가 대표적이다. 일본어에서 유래한 ‘라멘(ramen)’과 일본 해녀를 뜻하는 ‘아마(ama)’는 이미 이전에 등재된 바 있다. 케어 교수는 “몇 년 전에도 ‘해녀’ 등재를 시도했지만, 영어로 된 연구 자료와 언급이 충분하지 않아 쉽지 않았다”며 “최근 해녀를 소재로 한 드라마 등이 나오면서 영어권에서의 언급이 늘어나 등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짬질방’과 ‘빙수’ 역시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사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포함됐다.

[기사 출처] 문화일보, 정지연 기자, 2026/01/07
<https://www.munhwa.com/article/11559088?ref=naver>



▲ 옥스퍼드영어사전(OED)에 최초 등재된 ‘라면(ramyeon)’



세계태권도연맹

‘민간외교 침병’ 정부과건 사범에 공로패

세계태권도연맹(WT)은 2025년 11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 정부과건 태권도 사범 공로패 전수식’을 개최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조정원 총재와 양진방 부총재, 국기원 윤웅석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광기옥(가나), 김용광(리비아), 김선공(부르키나파소), 전상호(시리아), 강신철(이란), 정기영(이집트), 이병호(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김영태(코트디부아르), 홍은후(튀니지) 사범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최기철(가나), 박남현(가봉), 박정원(가봉), 김무천(나이지리아), 이상진(세네갈), 김승주(이집트) 사범에게는 따로 공로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970년대부터 개발도상국과 미수교국 등 전 세계 곳곳에 과건태 태권도 보급과 함께 민간외교의 침병 역할을 해온 정부과건 사범들의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과건 태권도 사범 제도는 1960년대 주월한국군사령부 태권도교관단을 시작으로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을 통해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들의 헌신은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과 1974년 아시아태권도연맹(ATU) 창설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 전 세계 215개 회원국과 난민팀이 가입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성장과 한류 확산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원 총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간외교의 침병 역할을 해주신 사범님들의 헌신과 희생은 태권도 역사 그 자체이며,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5/11/26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61068000007?section=search>



▲ ‘대한민국 정부과건 태권도 사범 공로패 전수식’ 기념촬영(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ICKC, 2025 송년회 개최… ‘세계전통문화축제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ICKC)는 지난 12월 2일(화) 서울 송파구에서 2025 송년회 및 ‘세계전통문화축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CKC와 세계한인여성협회(UWKW)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국내외 문화·예술·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 교류와 국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말 및 축사, 준비위원회 출범식, 만찬과 교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박세영 ICKC 이사(UWKW 사무총장)와 강석재 ICKC 이사가 맡았다.

이효정 ICKC 이사장 겸 UWKW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전통문화축제는 각 민족 고유의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 문화 플랫폼”이라며 “이번 준비위원회 출범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계 각국의 문화기관과 협력해 문화유산 보호, 전통예술 교류, 청소년 문화교육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세계전통문화축제의 경과보고와 함께 출범 취지문 및 선언문이 발표됐다. 준비위원회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흥익의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다국적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적 연대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00명의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축하 강연과 공연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조명하는 메시지가 공유됐으며, 성악과 플루트 연주, 전통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만찬과 자유 스피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계전통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효정 이사장을 비롯한 ICKC 임원진은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ICKC-UWKW 세계전통문화축제’를 향해 준비위원회와 함께 단계적인 기획과 국제



▲ 송년회 및 세계전통문화축제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재)종이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종이접기 강연과 체험을 즐기고 있다.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영섭 ICKC 고문(변호사·전 ICKC 감사)께 준비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는 이효정 이사장



▲ 이효정 ICKC 이사장(UKW 총재) 인사말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한궁협회(회장 강석재, ICKC 이사)는 지난 2025년 11월 8일(토)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장애인한궁연맹 등이 공동 후원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스포츠 대회로 마련되었다. 총 약 250명의 선수·심판·안전요원이 참여해 어울림 체육의 취지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행사는 식전 장구·대금·성악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고, 이어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비장애인 부문별 경기에서는 열띤 경쟁이 펼쳐졌으며,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화합·평등·배려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궁은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이며, 건강·행복·평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서울에서 어울림 한궁대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시민 모두의



▲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ICKC 이사) 대회사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활동 소식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건강 상담, 홍보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장애인 참가자들이 비장애 참가자들과 동일한 경기장에서 함께 경쟁하며 진정한 의미의 ‘어울림 체육’을 구현해 많은 참가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어울림한궁대회는 한국의 대중성과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대·계층·장애 유무를 넘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협회는 내년 더욱 확대된 규모의 대회를 준비하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포용적 체육 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경기 모습

2025년 후원하여 주신 분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 깊게 소중히 사용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실,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김호일, 박경명, 박기연, 박명수,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배대환, 송대성, 심의표, 양수영,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덕균, 정상설,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서울중앙의료의원,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에스아이글로벌, (주)P&H

가나다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59,965,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주최하거나 관계되는 행사, 대회 등을 본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싶으신 회원분께서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휴대전화 : 010-3531-3494 (최영욱 사무국장) 이메일 : hangyobon@gmail.com



전통의 조화, 인류의 평화로 잇다
Harmony in Heritage, Peace in the World

ICKC-UWKW
WORLD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세계전통문화축제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2025.06.30.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로 법인명 변경 (문체부 승인)

조직 구성

고문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익근 (주)P&H 회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전영섭 변호사	정순영 前 국회의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강영실 교보생명 프라임리더
	박영옥 전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운영위원	박경숙 뉴스피플 회장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이성미 로미코리아 대표	이효진 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황현모 전시기획자, 화가	
감사	고용규 (주)둥우들 대표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 2024년 네팔 GCS 국제대회 참석 및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밝은사회운동 결성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달
-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